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7



Contents

※ 2025.05.02.(금) 기준(대상 기간 : 2025.04.24.~2025.04.3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과기정통부, 수소·무탄소에너지 등 기후대응 기술 고도화(2025.04.24) 1
- 수소에너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인재양성 상징공간' 마련(2025.04.24) 1
- 포항시, 에스퓨얼셀과 200억 MOU 체결, 수소경제 선도도시 본격 시동(2025.04.24) .. 1
- 태안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만든다(2025.04.24) 2
-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기념식수 행사(2025.04.24) 2
- "수소·바이오헬스...충주의 미래 청사진을 대선공약에"(2025.04.24) 3
- 전력·AI·수소로 미래 에너지 시장 집중 투자(2025.04.25) 3
- 부산교육청·수소선박기술센터, '과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2025.04.25) 3
- 경북 수소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첫발(2025.04.27) 4
-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연말 착공 가속도(2025.04.27) 4
- "전북 수소산업 한 걸음 더", '이퓨얼 생산기술' 차세대 국책사업 최종 선정(2025.04.28) · 5
-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만경경 통합하천 '가속화'(2025.04.28) 5
- '한미동맹의 상징' 평택... '수소1번지' 발돋움한다(2025.04.28) 5
- '2025년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 열려(2025.04.30) 6

■ UAM

- "꿀잼으로 청년 잡아라", 울산 UAM·3D아트 프로젝트(2025.04.25) 7

- "UAM 타고 섬 비행 등 다양한 체험 통해 여수의 진가 알릴 기회"(2025.04.30) 7
-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1조2천억 규모 '대한항공 UAM R&D센터' 유치(2025.04.30) · 7
- 부천대장 도시첨단산단에 'UAM·항공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부천시-대한항공 협약 (2025.04.30) 8

■ 우주

- 인천시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2025.04.24) 8
- 우주항공 공약 경쟁 속 중심지 논란 심화(2025.04.24) 9
- 제주 우주산업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2025.04.24) 9
- 고흥우주항공축제 관련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2025.04.24) 10
- 사천·경남·KAI, 항공우주 중심 지역 상생 협약 체결(2025.04.24) 10
- 사천-세종 간 우주항공청 직통 시외버스 운행 시작(2025.04.28)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수소 혼입 검증(2025.04.24) 11
- 한전KDN,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진행 업무협약 체결(2025.04.24) 12
- 韓 최초 원자력 수소 플랜트, 10월에 첫삽 뜬다[디깅에너지](2025.04.24) 12

■ UAM

- 한국공항공사, UAM 버티포트 공모전 개최(2025.04.29) 13

▪ 우주

- 우주청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계획에 제동(2025.04.24) 13
- 차기 정부의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필요성 강조(2025.04.29) 1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로 전주국제영화제 손님들 이동 지원(2025.04.24) 14
- "수소차 등 모빌리티 강화위해 글로벌 인재확보 주력"(2025.04.28) 15
- 태양광 수소생산 한걸음, 광전극, 유기물로 제작해 부식 문제 해결(2025.04.28) 15
- KIST-중앙대, 청정수소 R&D 힘 합친다(2025.04.30) 16
- 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전담기관과 정책간담회 개최(2025.04.25) 16
- "수소차 5만대 시대 눈앞...도심 충전소 늘리고 공급망 관리 시급"(2025.04.28) 17

▪ UAM

- 한진그룹-LS그룹, 항공우주·UAM 시너지 창출..MOU 체결(2025.04.28) 17
- 스페이스베이, SAR 안테나 전개기술 미국 시장 진출(2025.04.25) 18
- 한진그룹-LS그룹, 항공우주·UAM 협력 MOU 체결(2025.04.28) 18

▪ 우주

- 전북대, 방위산업·이차전지·항공우주 학과 정원 증원(2025.04.29) 19
-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20호 발사 성공(2025.04.24) 19
- 국방우주 강국 정책 세미나 개최 예정(2025.04.24) 1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과기정통부, 수소·무탄소에너지 등 기후대응 기술 고도화(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위한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 1월 발표한 862억원 투자 계획 중 올해 신규 6개 사업 27개 과제(233억7000만원) 선정 - '제1차 글로벌 연구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연구 착수.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과 차세대 수전해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 연구소들과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 내구성 향상 연구 예정 - CCU 분야는 미국·영국과 탄소 포집 기술 상용성·비용 저감 R&D 및 'CCU 전주기 탄소감축 평가·인증체계 구축' 통해 국내 최초 CCU 평가플랫폼 구축.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선정과제 최대 6년간 지원 예정
지자체	<p>□ 수소에너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인재양성 상징공간' 마련(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삼례읍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지역 대표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 기념 상징 공간 조성. 학교 입구에 협약 기관 깃발 게양하고 로비에 협약서 액자 전시해 지역사회와 인재양성 산실임을 보여주는 시설 구축 - 전북하이텍고에서 수소에너지고로 변경한 학교는 완주군청, 현대자동차, LS엠트론 등 대표 기업과 우석대, 전북대 등 연구 중심 대학과 협약 체결. 수소 및 에너지 산업 인재 양성에 협력하며 기업-학교-지역사회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송현진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함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약속. 이 공간은 단순 장식 아닌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학교문화로서 지역 인재양성의 핵심적 역할 수행 <p>□ 포항시, 에스퓨얼셀과 200억 MOU 체결, 수소경제 선도도시 본격 시동(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가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 위한 발판 마련. 국내 대표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과 200억 원 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 블루벨리국가산단 내 6,498㎡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 신설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구축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퓨얼셀은 건물용·발전용 연료전지, 수소 지게차용 파워팩 등 다양한 제품 보유한 수소전문기업으로, 23건 특허와 KS 인증 제품 16종 기반 기술력 인정.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포항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는 협약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으로 평가 - 포항시는 기축 아파트 대상 연료전지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도심형 분산 전원 모델 실현 가능성 검증 계획. 포항시는 시범사업 지원, 에스퓨얼셀은 기술·품질 관리 담당.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중
	<p>□ 태안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만든다(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작되는 태안에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계획.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4월 23일 태안군수,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과 태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한 탄소중립 실현 목적 - 태안을 인평리 1만2397㎡ 부지에 2028년까지 170억원 투입, 천연가스 개질해 1일 1톤(연간 360톤) 수소 생산 계획. 수소승용차 6만대 완충 가능 규모며,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1일 2톤으로 확장 예정. 천연가스 개질 과정의 이산화탄소 95% 이상 포집하여 고순도 탄산칼슘 생산 - 협약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사업 총괄, 충남도·태안군은 행정 지원, 원일티엔아이는 수소 설비, 제이플엔지니어링은 탄소 포집 설비 구축 담당. 전형식 부지사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 필수 요소로, 태안을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p>□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기념식수 행사(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소용품 법정검사 수행시설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4월 24일 센터 활성화와 완주군 수소산업 발전 기원 기념식수 행사 개최. 유희태 완주군수,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장 등 참여해 수소산업 발전과 상호협력 간담 -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시험동과 고객지원동 구축해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법정검사, 성능 평가, 창업기업 사무공간 지원, 해외인증 취득지원 등 수소경제 활성화 핵심 역할 수행 -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대한민국 수소산업 핵심 인프라로서 수소산업 활성화의 중요 역할 기대“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수소관련 산·학·관·연 네트워크 강화로 수소산업 발전 노력 기울일 것“ 발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수소·바이오헬스...충주의 미래 청사진을 대선공약에"(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가 제21대 대선 앞두고 지역 발전 기회 선점 위한 공약 발굴 착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분야별 공약과제 체계화하여 정당·관계기관에 전달하며 대선 공약화 위한 노력 가속화 - 이번 공약과제는 단순 지역 현안 넘어 국가 정책기조와 연계성 강화하고 충주 미래 비전 담음.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신산업 육성 기조에 맞춘 전략 과제들 포함. 산업 분야에선 충주댐 기반 수자원 혁신단지,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등 핵심 과제 제시 - 조길형 시장은 “이번 공약과제는 충주 미래를 이끌 전략적 과제 담겼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가정책 반영 위한 최선 다짐. 수소 산업을 지역 발전 핵심 축으로 삼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계획
	<p>□ 전력·AI·수소로 미래 에너지 시장 집중 투자(2025.0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투자 병행. 효성중공업이 미국·유럽 전력기기 시장 공략으로 실적 호조. 송·배전 변압기 교체, 전기차 충전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로 전력기기 수요 급증. 2020년 인수한 미국 멤피스와 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결정 - 효성중공업, AI·디지털 기술 기반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 개발 중. 조현준 회장 “비즈니스 환경 중심에 AI 있다” 강조. AI 기반 자산관리 'ARMOUR+', AR 비전검사, 국내 최초 독자 개발 200MW급 HVDC, 전력 안정화 'STATCOM' 등 첨단 제품·기술 개발 - 효성, 저탄소 에너지 위한 수소 사업 집중 투자. 효성중공업은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점유율 1위, 린데와 합작해 액화수소 생산·운송·충전인프라 구축 중. 2023년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등 수소 에너지 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
	<p>□ 부산교육청·수소선박기술센터, '과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2025.0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교육청은 4월 24일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와 미래 과학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첨단 우주·의료 기술 기반되는 수소에너지와 초저온 과학기술 연구하는 최첨단 연구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으로 교육청과 센터는 학생들의 초저온 과학기술 관심 유도 지원, 과학교사들에게 연구소 기술 기반 기자재 안내로 교육현장 활용 지원 예정. 교육-연구 연계로 미래인재 양성 기대 - 김석준 교육감은 “교원연수, 프로젝트 수업 등 수소에너지·초저온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인재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 언급. 이번 협약은 미래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초석이 될 전망
	<p>□ 경북 수소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첫발(2025.04.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는 4월 25일 포항시 동부청사에서 포항시, 울진군 등 지자체와 포스코홀딩스 등 기업 참여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수소산업 전주기 확대·활성화 위한 중장기 계획 첫 단계 - 수소에너지고속도로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생산 청정수소를 1,000km 배관망으로 도내 공급하는 인프라. 울진-포스코 포항제철소 구간 우선 구축 후 도내 확대 예정. 탄소배출 최다 기업인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설비 구축 중으로 대량 수소 공급 위한 배관망 필요 - 용역은 수소 인프라 체계적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이행 계획 등 국가전략 정합성 확보, 지역균형발전 실행전략 도출 목표. 홍석표 에너지산업 국장은 “수소산업 확산·인프라 구축 첫걸음“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약속
	<p>□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연말 착공 가속도(2025.04.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는 2027년 말 개통 목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전기트램 건설 사업 속도. 차량 제작업체 선정 완료, 다음 주부터 실시설계 용역 진행, 올해 말 착공 계획. 평가 결과 제작 업체는 평균 64.86점(70점 만점) 받아 낙찰자로 선정 - 제작 트램은 약 245명 정원 무가선 수소트램(5모듈) 1대, 제작비 약 78억원, 제작 기간 28개월 예상. 수소연료전지로 운행, 20분 충전으로 약 200km 주행 가능. 배기가스 없이 물만 배출해 온실가스 배출 크게 감소 - 이 수소트램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세계 최초 무가선 수소트램 상용화 선보일 예정. 총사업비 235억원 투입, 태화강역-울산항역 4.6km 구간 활용해 2027년 말 개통 목표.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 최초 무가선 수소트램 상용화로 울산 이미지 제고 기회“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북 수소산업 한 걸음 더", '이퓨얼 생산기술' 차세대 국책사업 최종 선정(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과기정통부 '2025년 차세대 CCU기술고도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수소와 이산화탄소 결합한 이퓨얼(e-Fuel) 원료물질인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 전주기 생산 실증 추진. 이퓨얼은 물 전기분해 수소와 CO2 합성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항공, 해운, 국방, 내연기관차 등 탄소중립 수단 - 군산 산단에 구축할 이퓨얼 기반은 재생에너지 수전해 수소와 산단 포집 CO2로 고상 합성원유 생산. 정유 거쳐 항공유, e-디젤, e-가솔린 등 상용화 예정. 2025.4~2028.12 사업기간에 국비 186억, 도비 15억, 시비 20억, 민간 19억 등 총 240억원 투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 한국화학연구원 등 산·학·연 8개 기관 참여. 군산은 대규모 CO2 포집 가능 산단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인접한 최적 조건 보유.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지, 친환경 선박연료 기지로 확장성 높음
	<p>□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만경강 통합하천 '가속화'(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및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등 100대 중점사업 추진 박차. 유희태 군수는 4월 28일 확대간부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민선 8기 3년차 맞아 핵심 사업 가속화 계획 발표 - 완주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위해 부서별 대응전략 수립과 연계사업 발굴 등 선제 대응 예정.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청렴헌장 법제화 등 41개 과제도 추진 - 유희태 군수는 "악성민원 엄정 대응, 신속 예산집행, 국가예산 확보 위한 중앙부처·전북도 출장 등 당면과제 차질없이 추진" 지시. 완주군은 전북지역 수소산업 중심지 자리매김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에 총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p>□ '한미동맹의 상징' 평택...'수소1번지' 발돋움한다(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평택은 미국 본토 외 세계 최대 미군 부대 주둔 한미동맹 상징도시이자 동북아 핵심 안보도시로 반도체 넘어 수소도시로 도약 중. 정장선 시장은 "평택을 수소1번지로 보면 된다"며 수소도시 발전 강조. 평택은 이미 수소도시로 지정되었고, 국내 최초로 수소항, 수소 복합 교통기지, 수소 공공형 생산시설 운영 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선 시장은 “평택에 청정수소 인증센터와 청정수소발전진흥원 설립, 앞으로 연구부터 산업 활용, 상용화, 발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수소 1번지 될 것” 전망. 평택은 탄소배출 많은 산업도시지만 녹지율 17%로 최저, 환경문제 해결 위해 그린웨이 30년 계획 추진, 도시 녹화와 탄소감축 병행 - 평택시는 현재 인구 65만에서 2040년 107만 성장 예상, 첨단산업과 함께 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 GTX A, C 노선 연결 교통 중심지로 성장 예정. 정 시장은 “평택은 젊은 도시로 혼인율·출산율 높고 젊은 비중 높아, 젊은 이들이 살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도시 만드는 것이 목표” 강조. 경제·안보 핵심 도시로 국가경쟁력 향상 기여 계획
	<p>□ '2025년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 열려(2025.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울진군은 4월 2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와 '울진 원자력 대용량 수소생산 활성화 전략 수립 전문가 그룹 위원회 Kick-off 회의' 연이어 개최.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본격 출발 - 울진군 주최,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에너지산업진흥원 공동 주관한 행사는 울진 원자력수소산업 추진 기반 마련과 전략적 방향 설정 위한 정책 협력 사례로 주목. 정기총회에선 민간 주도 협력방안 논의, 전문가 위원회에선 산·학·연 전문가들이 생산공정 고도화,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인력양성 전략 등 논의 - 전문가 위원회는 2025년 연말까지 중간점검·최종보고회 거쳐 정책 제안서·실행 전략 보고서 수립 계획.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 도약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통해 'K-에너지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밝힘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꿀잼으로 청년 잡아라", 울산 UAM·3D아트 프로젝트(2025.0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가 청년 '탈울산' 방지를 위한 '꿀잼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 다음 달부터 국내 최초 UAM 체험 '울산 라이징포트'가 울산박물관에서 운영 예정. 1m 상공 모의장치로 울산 명소를 고해상도 화면으로 체험 가능. 실제 UAM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 - 9월엔 태화강에 11~14m 높이 스카이워크 설치 예정. 시청사엔 3D 입체영상 미디어파사드가 올해 말 설치 계획. 700㎡ 대형 화면에 창의적 콘텐츠로 전국적 관심 유도 전략 - 울산시와 지역 기업들의 산업경관 개선 협약으로 공단 문화콘텐츠 사업 진행 중. 현대차는 공장 출입문에 LED 전광판 설치, 담장을 야간 아트월로 변경. SK 울산 콤플렉스는 CES 인기작 '매직스피어'를 정문에 설치해 시민 관심 집중
	<p>□ "UAM 타고 섬 비행 등 다양한 체험 통해 여수의 진가 알릴 기회"(2025.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수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장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략 언급. 세계에 섬 비전 제시와 여수 관광도시 홍보 기회 강조. 미래 섬 교통수단 UAM 시연 계획 발표. 여수만의 새로운 해양 관광 비전 제시 - 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2.7km 거리 경도까지 UAM 비행 시연 계획. 유인 비행 규정 갖춰지면 관람객 탑승도 추진. 공기부양정 체험과 연안 크루즈 운항 예정. 다도해 풍광 체험과 불꽃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제공 - 개막 연계 '세계 섬도시 대회', 10월 국내 섬 학술대회, 11월 세계 어촌대회와 해양관광포럼 개최 예정.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재즈 페스티벌, 거문도 뱃놀이 공연 등 여수 전역 문화행사 준비 중. 섬 문화 체험 기회 제공
	<p>□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1조2천억 규모 '대한항공 UAM R&D센터' 유치(2025.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부천시가 부천대장지구에 1조2천억원 규모 대한항공 'UAM & 항공안전 R&D센터' 유치해 미래 항공산업 거점 기반 마련.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과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입주협약' 체결 - 협약으로 대한항공은 제2산단 내 6만6천㎡ 부지에 R&D센터, 무인기 연구소, 운항 훈련센터 등 항공기술 인프라 구축 예정. UAM은 하늘 택시로 교통 혼잡 해소와 탄소 저감 기여할 차세대 모빌리티. 항공 안전기술 결합으로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유치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디엔솔루션즈 이은 세 번째 선도기업 투자. 부천대장 도시첨단산단이 미래산업 집적지로 발전 중. 부천대장지구는 345만㎡ 규모, 2023년 착공해 2029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 제1·2 도시첨단산단 56만㎡ 포함
	<p>□ 부천대장 도시첨단산단에 'UAM·항공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부천시-대한항공 협약(2025.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단에 대한항공 'UAM·항공안전 R&D단지' 조성 계획. 대한항공, 1조2천억원 투입해 2030년까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만5845㎡ 부지에 단지 조성. 운항훈련센터, 무인기 연구소, 조립공장, 안전체험관 등 구성 -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부천대장 제2산단이 대한항공 본사, 아시아나항공 본사, 객실훈련센터 등 반경 2km 내 위치한 최적 입지 강조. 연구단지로 경쟁력 강화 의지 표명. 조용익 부천시장은 첨단 과학도시 전환 시점에 대한항공과 협력 기회에 적극 지원 약속 - 운항훈련센터는 연간 2만1600여명 조종사 교육 예정. 무인기 연구소·조립공장에선 석박사급 1000여명이 UAM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인기 제작. 안전체험관에선 산업체 안전교육과 시민·학생 체험, 부천과학고 등 지역 교육기관 연계 항공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지자체	<p>□ 인천시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 비전으로 중장기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 5대 전략과 18개 실행 과제 중심의 인천형 항공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업 생태계 육성 계획.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 연계한 클러스터 중심으로 항공산업 성장과 육성기반을 확장할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는 공항경제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지원과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체제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항공정비 분야에서는 정비단지 활성화와 민간 업체 유치 및 교육 인프라로 국내 정비 산업 자립화 촉진. 공항과 주변 개발 협조로 상생협력 추진 계획 -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는 실증노선과 제도 정비로 '인천형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드론 활용과 우주산업 육성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 국방 관련 기술 보유 중소기업·벤처기업 발굴과 '국방벤처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예정. 이를 통해 인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추진
	<p>□ 우주항공 공약 경쟁 속 중심지 논란 심화(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에서 건의한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이 경기도 과천에서 개최되어 지역 간 중심지 경쟁 심화.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당혹스러움 표명. 정부가 그동안 우주항공 정책 수립 시 경남(제조), 전남 고흥(발사체), 대전(연구개발)으로 명확한 구심점 없이 분산 배치한 점이 원인 - 대전 국면에서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과 대전 표심 공약 필수 공약. 민주당 경선에서는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 메카로, 대전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삼는 공약이 제시. 국민의힘도 경남과 대전 모두 고려한 공약 제시 전망. 민주당이 석권한 대전 정가의 움직임은 경남에 부담 -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분할·신설 관련 논의가 지속. 경남도의회원은 이러한 기능이 타 지역으로 분산될 우려 표명. 대전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 우주항공 분야 12개 과제 수용 여부가 관심사
	<p>□ 제주 우주산업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정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에 강한 비판 제기. 오영훈 도지사가 4.3 추념사에서 언급한 우주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이 제주의 평화와 환경 훼손 우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이 사업이 환경 규제 완화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 - 서귀포 하원마을의 한화우주센터와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 우주산업에 대해, 한화시스템의 이스라엘 무기 기업 협력과 팔레스타인 사태 연관성 비판. 페리지 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어로스페이스의 해상발사 화재 사고 은폐 문제도 제기. 운영빈 우주항공청장의 제주도 남단 제2 발사장 건설 언급에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 단체는 남단 발사장 설치가 지역주민 인권, 환경 무시와 제주 군사화 심화 우려. AI·디지털 대전환도 지하수 고갈과 전력 과소비 초래 우려. 제주의 미래를 '첨단산업'으로 인식하면 제주의 과거·현재·미래 왜곡된다며, 4.3 정신 훼손하는 우주산업과 디지털 대전환 중단 촉구
	<p>□ 고흥우주항공축제 관련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고흥군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앞두고 야놀자와 협업해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흥 관내 숙소 예약 시 최대 4만 원 할인 쿠폰 선착순 제공. 7만 원 이상 시 4만 원 할인, 5만 원 이상 시 3만 원 할인 혜택 적용 - 이번 프로모션은 관광객 숙박비 부담 경감과 관광 수요 확대에 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 전망. 고흥군은 더 많은 여행객이 합리적 비용으로 고흥 방문하도록 다양한 프로모션 지속 추진 계획. 할인 쿠폰은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4일간 개최, 우주발사장 견학과 천체관측 체험 등 가족 프로그램 마련. 이 프로모션으로 축제 기간 관광 활성화와 우주항공 대중적 관심 증대 기대. 나로우주센터 위치한 고흥은 우주항공 주요 거점으로 축제를 통해 우주과학 대중화 기여
	<p>□ 사천·경남·KAI, 항공우주 중심 지역 상생 협약 체결(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천시가 23일 '2025 경남 경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경남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3자 협약 체결. 항공우주산업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 목표. KAI 본사 위치한 사천은 산업 고도화와 고용 확대 계기 마련. 협약은 도민 고용, 문화예술 진흥, 지역 소비 촉진 공동 노력 초점 - 협약에는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융합공학과 지원, 글로벌 대학 유치 협력 포함. KAI는 고졸 실습생 운영, 지역 청년 사회공헌, 문화행사 후원으로 지역사회 참여 확대. 사천에어쇼 공동 주최, 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관광지 연계도 진행. '사천산업투어'와 '방위산업투어' 정례화 - 협약의 실질적 지역 파급력은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도 존재. 기존 지원 방식 반복 시 시민 체감도 낮을 우려. KAI 활동이 자발적 기여 수준에 머물 경우 지방정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장기 전략과 정합성 한계 예상. 청년 고용의 단기 실습 외 지속성이 과제. 이 구조가 보완되면 항공우주산업의 지역 뿌리내림과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p>
	<p>□ 사천-세종 간 우주항공청 직통 시외버스 운행 시작(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청 위치한 사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위해 세종청사 연결 시외버스를 다음 달 7일부터 운행. 그동안 우주항공청에서 세종청사 직행 대중교통 없어, 대전에서 환승 필요했던 불편 해소. 신설 노선은 삼천포터미널 출발해 우주항공청·사천·진주·대전 거쳐 세종청사·세종터미널까지 운행 - 경전여객이 하루 왕복 1회 운행 예정, 25일부터 온라인 예매 시작. 경상남도는 이용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와 경로 탄력 조정 계획.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 후 우주항공청사천·진주터미널, 주요 도시우주항공청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지속 개선 - 사천공항도 노선 확대 중으로, 현재 제주·김포 두 노선 운영. 대한항공 제주 노선(주 5회), 진에어 김포 노선(매일 2회) 운항. 내년부터 섬에어의 사천~김포·제주 노선과 하이에어의 재취항도 추진. 경상남도는 장기적으로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우주항공청 중심 지역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강화 전망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수소 혼입 검증(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입 방안 검토 중. 2023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수소 혼입 전주기 안전성 검증 연구 사업 착수, 설비 변경 없이 수소 안정적 혼입 기술적 기반 마련 목표 - 연구는 수소 5%부터 20%까지 단계별 혼입률 안전성 검증하여 최적 비율 산정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진행. 배관, 연소기, 부품, 내구성 등 4개 분야로 추진 중. 2026년엔 연구 결과 바탕으로 도시가스 수소 혼입 안전기준 수립 위한 법령·KGS CODE 개정 등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에 20% 수소 혼입시 약 765만t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2030 NDC 목표량의 2.63%).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전망
	<p>□ 한전KDN,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진행 업무협약 체결(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DN은 4월 23일 전북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 추진 그린수소 기반 자립형 수소도시 조성사업 본격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 전북테크노파크,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참여해 각 기관 핵심 역량 결집한 부안형 수소도시 실현 목표 - 협약으로 부안군청은 정책·행정 제공, 전북TP는 사업관리·실증·R&D 모델 발굴 지원. 한전KDN은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과정 안정적 운영 위한 통합운영 안전센터 구축지원. 한전KPS는 그린수소 효율적 생산 기반시설,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배관·인프라 구축 담당 -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린수소도시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전략으로 부안군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아우르는 모범적 모델 제시할 것” 강조. 한전KDN은 전주·완주, 안산 등 수소시범도시와 보령, 당진 등 통합운영센터 구축 진행하며 수소도시 운영에 독보적 위상 확보 중
	<p>□ 韓 최초 원자력 수소 플랜트, 10월에 첫삽 뜬다[디깅에너지](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원자력 수소 생산 가속화, 한국수력원자력 10월 울주군 신암리에 원자력 수소 실증 플랜트 착공 예정. 2027년 3월 가동 목표. 고리·새울원전 전력 공급받아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 생산 시설 구축 - 한수원은 10MW급 저온 수전해 방식으로 하루 4t 이상 수소 생산·저장·출하 시설 구축 계획. 현행법상 원전 전기 직접 연결 불가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예정. 향후 법·제도 개선으로 전용망 통한 직접 전력 공급과 별도 전력 비용 정산 필요 - 국내 최초 원자력 수소 플랜트에 삼성물산,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12개 기관·기업 참여. 생산 수소는 청정수소로 인증받을 전망. 한수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산업에 수소 활용 계획. 울진군 수소특화단지와의 시너지 기대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국가기관</p>	<p>☐ 한국공항공사, UAM 버티포트 공모전 개최(2025.0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가 4/21부터 6/20까지 대학생 대상 '제5회 UAM 버티포트 설계 공모전' 개최. UAM 사업 대중 관심 증진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목적.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 버티포트에 대한 혁신적 제안 모집 - 공모 주제는 '공공 목적 UAM 버티포트'. 심사는 공공서비스 연계 운영 컨셉 구체성, 실현 타당성, 디자인 표현력, 4차 산업기술 융합 혁신성 평가. 공공 버티포트는 경찰, 소방, 재난, 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능 필수 - UAM 버티포트는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착륙, 이륙, 충전, 정비 기능 터미널. 수상작은 최우수상(장관 표창, 300만원), 우수상(사장 표창, 200만원), 장려상 2팀(100만원), 베스트 혁신상(100만원) 선정 계획
<p>지방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국가기관</p>	<p>☐ 우주청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계획에 제동(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 개발하려는 계획이 행정 절차 첫 관문 통과 실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특정평가는 환경 변화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때 변경 적절성 판단 제도 - 변경안이 특정평가 요건 미충족 판단 이유는 예산 증액이 제시한 12.7%를 넘어 15% 초과 예상과 원안 통과 당시 대비 환경 변화가 불분명한 점. 과기정통부는 "사업 근간 변경 내용으로 특정평가 부적절" 설명. 우주청의 첫 '브랜드 사업'인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제동 - 우주청은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라는 고강도 절차 필요.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수준으로 사업 일정 지연과 구조 변경 추가 검토 불가피.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 전환 방향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적합한 행정 절차로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계획” 언급. 이 결정으로 2032년 달 착륙 목표 차질 우려</p> <p>□ 차기 정부의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필요성 강조(2025.0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정부의 수요 창출과 효율적 분배가 중요” 강조. “우주항공산업이 자생하려면 생태계 조성 필요하며, 항공은 어느 정도 구성됐으나 우주는 시작 단계” 분석. 정부가 위성 등 새 수요 창출하고 국가차원에서 민간·군에 효율적 분배 필요 제안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 우려 표명. 재사용발사체 기술 적용 추가 예산 2550억 원 투입 지연 문제로, “메탄엔진 개발 시간과 기술개발 공백 고려 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협력업체 포함한 전체적 시각과 우주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 사업 지연 우려” 언급 - 항우연은 우주청과 협력해 TF 구성, 다음 행정절차 위한 기술·행정 지원 모색 중. 특정평가에 새 내용으로 제안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 검토 중.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2032년까지 2조 132억 원 투입 위성발사·우주탐사 프로그램. 올해 항우연은 K-UAM 챌린지, 성층권드론기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다목적위성,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차세대발사체, 위성항법시스템, 달 착륙선 등 주요 연구개발 추진 중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로 전주국제영화제 손님들 이동 지원(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 개발·양산 중인 수소전기버스로 2025년 전주 국제영화제 지원. 수소전기버스·트럭 등 미래형 상용차 생산 회사 특성 살려 4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3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화제 기간 수소버스 셔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전주공장은 고속버스급 수소전기버스 5대 투입, 하루 10차례 총 500회에 걸쳐 전주역에서 영화제 행사장까지 관람객 수송 계획. 영화제 지원 수소버스는 2023년 4월 출시된 최신형으로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탑재 고속형 대형버스임 - 수소 연료 버스는 운행 중 오염물질 미배출, 공기 정화 역할로 '달리는 공기청정기' 별명 획득. 모터 구동으로 진동 없는 편안한 승차감 제공. 현대차는 수소시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와 환경문제 인식 확산 위해 수소버스 지원 결정
	<p>□ "수소차 등 모빌리티 강화위해 글로벌 인재 확보 주력"(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혜인 현대차 인사본부장(부사장)은 '202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를 '글로벌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재 확보와 협업 체제 구축 중요" 강조. 글로벌 기업 BAT에서 CHRO 역임한 김 본부장은 작년 1월 영입, 임직원 13만명 인사업무 총괄 - 김 본부장은 "현대차 매출, 판매, 이익이 해외에서 많이 발생, 사업 규모나 포트폴리오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음"을 언급. "고객들이 다른 국적·문화 가진 만큼 경영진도 다양한 '젠더'나 '내셔널리티' 고려" 설명. "SDV, 수소, 로봇틱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 인재 필요해 채용에 신경쓰는 중" 강조 - 김 본부장은 내부 소통 강화도 추진 중으로 "타운홀 미팅을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 참여 확대 추진, 각국 법인 인사 디렉터들과 정기적 소통" 전함. 글로벌 인재 확보와 다양성 강화로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향상 계획
대학교	<p>□ 태양광 수소생산 한걸음, 광전극, 유기물로 제작해 부식 문제 해결(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ST 연구팀이 수소생산 핵심부품 광전극을 전부 유기물로 제작해 기존 전극의 부식·박리 문제 극복 성공. 태양광 이용 친환경 수소의 안정적·경제적 생산 기술적 돌파구 마련. UNIST 김진영 교수팀은 이재성 교수팀, 고려대 우한영 교수팀과 금속산화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유기 광산화전극' 개발 - 태양광 수소생산은 물속 광전극에 햇빛 쬐면 전기화학반응으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원리 이용. 효율적 수소·산소 생산 위해 산성·염기성 용액 사용하는데, 기존 유기광전극의 금속산화물층은 이런 환경에서 부식·박리돼 안정성 저하 문제 존재 - 연구팀은 n형 자가조립 단분자막과 p형 고분자 전해질층 이용한 전유기 광전극으로 문제 해결. n형 단분자막은 기관-유기층 접착력 강화·전자 전달 효율 극대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p형 고분자층은 정공 선택적 전달·표면 친수성 향상. 개발 전극은 산성환경에서 7.92 mA/cm² 광전류 밀도 기록, 보호막 없이도 2시간 동안 초기성능 90% 이상 유지. UNIST 엽지우·이진욱 박사, 고려대 손재훈 연구원 참여, ACS Energy Letters 3월 14일 출판</p> <p>□ KIST-중앙대, 청정수소 R&D 힘 합친다(2025.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와 중앙대학교는 4월 29일 청정수소 분야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청정수소 기술 개발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 기술·인력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 특히 KIST 청정수소융합연구소와 중앙대 융합공학부·화학공학부는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융합기술 개발 공동 추진 예정. 연구부서간 후속 협약으로 세부 과제 도출, 연구성과 창출과 글로벌 수준 미래인재 양성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오상록 KIST 원장은 “연구자들과 교수진 협력으로 수소 도입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등 수소경제 구현에 국가적 기여 기대“,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 기회“ 평가. 양 기관은 2015년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 설치 이어 이번 MOU로 교육·연구 연계 인재양성과 임무 중심 공동연구 체계 본격화 계획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전담기관과 정책간담회 개최(2025.0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은 4월 28일 수소 5대 전담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예정. 신정부 출범 앞두고 수소경제 정책 지속성·확대 위한 국회 역할과 입법 지원체계 모색 위해 마련 - 간담회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소 전담기관인 한국수소연합·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진홍),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 등 5개 기관장 참석해 입법·규제 개선사항 제안 예정. 포럼은 지난해 11월 산업계 간담회 개최, 올 1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 발의 - 이종배 공동대표는 “수소경제는 국가 에너지 전략 중심축이자 미래 성장산업 핵심“이라며 신정부와 협력 통한 제도·재정 지원 약속. 정태호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혁신 동시 실현 해법이 수소경제“라며 초당적 협력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수소차 5만대 시대 눈앞...도심 충전소 늘리고 공급망 관리 시급"(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월 말 기준 3만9216대로 4만대 돌파 임박. 현대차 신모델 출시와 1만3000대 정부 보조금 확정으로 5만대 시대 곧 도래 전망. 그러나 전국 수소충전소는 4월 말 기준 218개소로 충전 시설 크게 부족 - 서울은 여의도 국회, 서소문청사, 서초 양재동 등 9곳에 충전소 있으나, 대중화 진입 위해 도심 충전소 확충 시급. 업계는 충전사업자 부지확보·경영 어려움 위한 세제혜택 등 정부·지자체 지원책 필요성 강조 - 수소차 보급 활성화 위해선 공급망 안정화도 선행 필요. 현재 여러 부처·기관이 유통망 관리 담당하나 가격 안정화 위한 전담기관 부재. 가스·전력과 달리 외부 충격 시 공급 불안정·가격변동 우려. 산업계는 국가차원 수소에너지 전담기관 신설 요구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한진그룹-LS그룹, 항공우주·UAM 시너지 창출..MOU 체결(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사업, UAM 분야 시너지 창출 업무협약 체결. 지난 25일 동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 목표로 협업 강화 MOU 맺음. 양사 핵심역량과 자원을 효과적 활용 방향 제시 - 양 그룹은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항공우주산업 고도화, UAM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 친환경화,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예정. 각 그룹 전문성 결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목표 - 양사는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해 상호 협력 강화로 성공적 협업 모델 구축 계획. 이번 협력은 항공우주산업과 친환경 기술 분야 새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망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스페이스베이, SAR 안테나 전개기술 미국 시장 진출(2025.0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베이가 국내 최초로 미국 리처드슨 엘렉트로닉스와 소형위성용 SAR 안테나 전개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SAR는 레이더파로 지표를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날씨나 조명 영향 없이 영상 획득 가능해 상업적 가치 증가 중. 국내에서도 2023년 KAIST와 한화시스템 소형위성에 SAR 사용 - 위성용 SAR 안테나는 가상 면적 확보로 넓은 공간 해상도 제공. 위성에서 안테나 넓이가 영상 품질 결정에 중요. 넓은 면적 구현 위해 작은 안테나를 접어 발사체 탑재 후 우주에서 정교하게 전개하는 기술 필수. 이 전개시스템은 일반 전개시스템보다 수백 배 정밀도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 - 스페이스베이의 이번 수출은 국내 기업 최초이자 선진국 독점 시장에서 이룬 성과로 의미 큼. 관계자는 “SAR 위성시장은 상업·군사적 지구관측 수요 증가로 성장, SAR 안테나 전개기술은 다양한 활용 앞당기는 핵심” 설명. 미국시장 진출 시작으로 새 SAR 전개기술 상용화해 국내외 기업과 동반성장 계획
	<p>☐ 한진그룹-LS그룹, 항공우주·UAM 협력 MOU 체결(2025.04.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사업,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과 동반 성장 도모. 양 그룹은 25일 동반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 목표로 사업 협력 MOU 체결. 각 그룹의 핵심역량과 자원 활용해 협력 확대 계획 - 협력 분야는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항공우주산업 기술 고도화, UAM 운영시스템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 수단 친환경화,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한진의 물류·항공 경험과 LS의 전기·에너지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분야 새 사업 기회 창출 기대 - 양 그룹은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해 사업 영역별 상호 협력 강화로 성공적 협업 모델 구축 계획” 언급. 이번 협약은 대기업 간 미래 산업 협력 모델 구축 의미. 특히 성장세 보이는 UAM과 우주산업에서 기업 간 협력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분야 상호보완적 발전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전북대, 방위산업·이차전지·항공우주 학과 정원 증원(2025.04.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으로 첨단산업 육성 추진 중 교육부 첨단분야 학생 정원 조정에 선정돼 관련 학과 신설. 2026학년도부터 첨단방위산업학과 20명, 이차전지공학과 30명, 항공우주공학과 12명 증원(36→48명) 등 총 62명 정원 확보 - 전북대는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후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 연결하는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조성 중. 특히 새만금 중심 이차전지와 K-방위산업 육성 위한 산학연 협력과 인재양성 추진. 이번 정원 증원은 전북 육성 의지 있는 산업 분야와 연계된 전문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통해 교육 혁신 넘어 지역 전략산업 중심대학이자 글로벌 경쟁력 가진 인재양성 허브로 도약 중"이라며 "정원 증원은 노력의 성과로, 첨단 산업 투자와 교육 혁신 지속 추진" 언급. 국가 수요 급증하는 이차전지,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은 고급 기술력과 현장 적용 능력 겸비한 인재가 관건으로, 정원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전망
해외	<p>□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20호 발사 성공(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활용 과학 연구용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 발사 성공. 24일 오후 5시17분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2F에 실어 발사. 천둥(사령관), 천중루이, 왕제 등 비행사 3명 탑승 - 선저우 20호는 발사 6시간 후 2022년 완공 톈궁에 도킹 예정. 승무원들은 6개월간 우주과학·응용 실험, 우주 잔해물 보호장치 설치, 외부 탑재물·장비 설치, 복구작업 등 수행. 선저우 19호 승무원과 교대하며, 19호 승무원은 29일 지구 귀환 예정 - 선저우 20호는 제브라피시, 플라나리아, 스트렙토미세스 등 생명과학 실험 위한 생물도 탑재. 이번 발사는 중국 '우주 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 우주정거장 통한 유인 우주 활동으로 우주 강국 위상 강화 중
기타	<p>□ 국방우주 강국 정책 세미나 개최 예정(2025.04.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우주 강국 건설 정책 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서천호 의원 대표의 국회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임종득, 김장겸 의원 공동 주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연구원, 기업 등 150여 명 참석 예정 -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와 심순형 산업연구원 박사가 '국방우주 시스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구축’, ‘방위산업 연계 우주산업 상승효과 창출’ 주제 발제.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KAIST, 국방연구원, KAI, 메이사 관계자들이 토론 참여. 미래형 국방우주 생태계 방향성 논의의 장</p> <p>-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방위산업 핵심 지역 사천 중심으로 국방우주 비전 모색, 경쟁력 강화로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세미나가 마중물 역할“ 언급. 국방-우주산업 연계 발전과 우주 기술의 군사적 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p>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